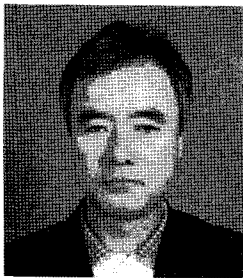


변화되는 육종에 맞는 사육기술 접목이 필요...



송 인 환
(성진부화장 대표)

진리를 일깨움 받는 것은 하나의 섭리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그 섭리를 진리의 과정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진리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원천일 진데 우리는 진리가 우리 삶의 최고봉에 속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활하는지 모른다.

실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한 과정일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지 모르지만, 산란 종계업의 발전은 곧 양계업의 발전이라고 하면 양계업의 발전이 산란 종계업의 발전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양계업은 몇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혹자들은 정부가 정책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업계를 망하게 했다고들 하고 있으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첨단 시설물들은 누가 운영해도 역시 과거보다는 더욱 발전된 것이니까. 몇 년전에 유럽의 어떤 육종회사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회사의 산란계 생산 시험소에서는 72주령에 345개 이상의 계란을 생산하는 그룹이 실험 계군 중 15% 정도가 되었다. 실로 경이로운 수치였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사양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몇가지를 알려달라고 했었다.

첫째, 육성중의 체중관리

둘째, 점등관리

셋째, 사료관리 등 전반적인 사양관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중요하다고 몇 번씩 강조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사양관리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은 육종을 계속하고 있다. 목표를 세우고 일년에 계란 몇개, 사료요구를 몇 % 이상을, 계란 총 생산량 몇g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사양관리 일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육종하여 만들어낸 품종을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집인지 고집인지 잘 모르지만 옛날 사양관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배움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육종회사들은 우리가 원하는 품종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 있지 않느냐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업계발전을 위한 제안이 있다면 현재 하이라인과 로만 두 품종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품종을 4~5가지 품종으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산란실용계 농장에서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좋은 품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종계장들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최악의 고비를 맞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양계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때문이다. 이 질병이 국내에 첫 상륙했다는 것은 방역에 큰 허점이 들어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청둥오리 등 철새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지만 중



국 등에서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류가 자연스럽게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방역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중국 내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철저한 검역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산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소비감소와 과잉생산으로 전체적인 양계업계가 어려운 시점에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육계가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계란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협조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질병이 추가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2004년 새해에는 우리의 양계업이 더욱 발전하였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웠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양계인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신년에는 소원성취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 **양계**